

사랑방장 교재(6월)

가. 관찰질문

1) 부모를 향한 자녀의 첫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1절)?

-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2)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2절)?

-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3) 성경적인 자녀관,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셋째,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4절)?

-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 나눔질문

1)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눅2:51). 그 순종을 통해 육신의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골3:20).

2) 진정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τιμάω(티마오) 인데 사전적인 의미가 “가치를 매기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존중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매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평가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3:23 이하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혈통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상위에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족보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영적인 가치는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3) 성경적인 자녀관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도록 부모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누구를 모방할까요? 부모를 모방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모를 모방하고 부모의 훈육 아래 있지만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분노를 통제해 주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분노를 통제하도록 잘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훈계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라는 말이며 교훈은 단지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적용질문

1)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와 교회의 모든 부모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적용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만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생전에 나누어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부모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며 적용해 보세요.

- 3절에 부모 공경의 약속으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모두 세상적인

가치로 성공하고 오래 살 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성경적인 자녀관을 당신의 자녀들과 베델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첫째, 자녀들은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통로로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의 부모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강요나 강압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정의 자녀들과 베델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첫째,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훈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모의 훈육을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잠13:14, 잠23:13-14, 잠29:15) 매를 들라는 말은 ‘몽둥리를 들고 패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옳은 길로 안내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